

유커(游客)와 산커(散客) — 탈식민적 아시아의 정동지리학*

서동진**

1. 이동하는 주체들: 디아스포라에서 유커까지
2. 장소, 이동, 서사
3. 응시하는 관광객, 그리고 그 이후
4. 맺으며: 새로운 정동지리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국문요약

우리는 이 글에서 유커라는 이동하는 주체에 주목한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가리키는 유커는, 중국인도 관광객도 아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유커가 아니고, 관광객으로서의 중국인이 아닌 중국인은 유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유커는 호스트인 한국인, 특히 관광업, 정부 및 공공기관, 언론매체 등에 의해 서사적으로 직조된 독특한 이동하는 주체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동하는 주체를 재현하는데 주도적인 서사로서 기능했던 ‘디아스포라’를 상대화하면서 장소, 정동, 기억 등의 쟁점이 어떻게 이동하는 주체를 규정하는데 기여하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행, 관광이라는 이동(移動)과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라는 부동(不動)의 모순을 간과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동지리학을 모색할 필요를 제기할 것이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08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8-361-A00003)

**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주제어: 유커, 중국인 관광객, 서사, 재현, 정동, 정동의 지리학, 디아스포라, 초국가주의, 이동성/부동성, 기억, 장소, 관광)

1. 이동하는 주체들: 디아스포라에서 유커까지

‘최순실 게이트’로 시끌벅적한 소동이 벌어지던 지난 해 즉 2016년 말 말부터 심심찮게 뉴스에 등장하던 화제가 있었다. 미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고 난 이후 한국 연예인들과 예술가들의 중국 공연이 잇달아 취소되고, 주요한 중국 수출 품목들이었던 화장품·공기청정기·양변기 등에 대하여 중국이 수입을 불허하였으며, 사드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내부에서 롯데의 중국 내 점포들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작되었고, 중국 인터넷의 소셜미디어(SNS: Social Network Services)에서 반한(反韓)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그리고 한한령(限韓令)에 따른 비자 발급의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객의 예약이 일순 사라졌다.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그것이 국내 관광산업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분한 예측이 신문과 TV의 뉴스에 단골처럼 등장했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매일 듣던 한 이름을 뜬하게 듣게 되었다. 그것이 유커(游客)일 것이다. 유커는 관광객을 일컫는 중국의 낱말이다. 이를 올바르게 발음하는 표현은 “뤼커”, “요우커”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어느새 토착화된 발음과 표기인 유커는 한국 사회에서 표준적인 표기처럼 자리 잡았다.¹⁾ 유커가 관광객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베이징에서 하이난 성의

1)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

해변 리조트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도 유커이고 상해에서 안전한 분위기를 사기 위해 홍콩으로 원정 쇼핑을 가는 여행자도 유커이며 한류 드라마의 촬영 현장을 찾는 관광객도 유커이다. 그렇지만 관광객을 총칭하는 이 낱말은 한국에서는 일종의 ‘문화번역’을 통해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을 가리키는 특별한 명칭으로 정착되었다.

유커는 한국의 관광시장과 면세점과 호텔, 식당, 리조트 등을 비롯한 여행 산업의 소비자이자 고객이다. 그들은 중국인이기에 앞서 관광객으로 분장한 어떤 중국인이다. 나아가 관광산업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특별한 이미지로 표상되고 정체화된 관광객이다. 따라서 유커란 중국인도 관광객도 아닐지 모른다. 그들은 한국 사회가 상상한 서사 속의 인물이다. 유커는 호스트(host)로서의 우리가 게스트(guest)로서의 중국인을, 즉 관광과 여행이라는 서사적 회로를 경유해 상상한, 현실에는 없는 중국인을 가리킬 뿐이다. 사람들은 미국인 관광객을 ‘투어리스트(tourist)’로 부르지 않고 일본인 관광객을 ‘료코우카쿠(旅行客/りょうこうきゃく)’로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은 어김없이 유커로 호명된다.

단체관광을 통해 자신을 찾은 관광객을 향해 건네진 집단적 응시가 만들어내는 만남의 서사는, 1960-70년대에 유럽과 미국을 찾은 일본인

위원회 제118차 회의(2014.12.3.)에서는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유커’로 적기로 결정하였다. 나아가 국립국어원은 유커라는 것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하면서, ‘유커’ 대신 ‘중국 관광객’ 또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바꿔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립국어원의 결정에 대한 비난 역시 거세게 나타났다. 한 주간지는 중국인 관광객을 헛갈리게 하는 중국어 표기법을 두고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 규정이 뜻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는 ‘외계어’ 표기를 양산하고 있다. 최근 급속히 늘어난 중국어 표기는 심각한 문제다. 신문 지면에 늘 등장하는 ‘유커’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한국으로 시집온 중국 여성조차 “유커가 뭐냐?”며 한국어 독해에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다.”라고 거세게 힐난하기도 한다. 이동훈, 「‘유커’나 ‘요우커’냐? 뜻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국립국어원의 이상한 중국어 표기법」, 『주간조선』 2428호, 2016.

단체관광객을 둘러싼 재현과 대조해볼 만하다. 수전 손택의 사진비평서에서 냉소적으로 서술했던 것처럼,²⁾ 깃발을 든 인솔자의 뒤로 바짝 줄을 지어선 채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는 일본인 단체관광객의 이미지는 서구 호스트의 일본인에 대한 시선을 응축한다. 그것은 짧은 국경일 연휴 기간 동안 함께 몰려 여행을 떠나야 했으며 외국어를 해득한 능력을 가진 이들이 소수였기에 가이드 투어가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무시한다. 혹은 1980-90년대 초 일본을 떠들썩하게 했다는 “Yellow cab(イエローキャブ)” 소동을 상기해볼 수도 있다.³⁾ 그렇지만 그것은 차라리 하위문화적 정체성에 가까운 것이었지 민족=관광객의 정체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유커는 특별하다.

이 글은 이동하는 주체를 가리키는 다양한 이름들 가운데 유커라는 주체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동하는(mobile)’(혹은 부동하는(immobile) 주체를 규정하고 이해하는데 투여된 서사를 비판적으로 해부하려 한다.

2) 수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이재원 옮김, 이후, 2005.

3) ‘옐로우캡은 미국을 찾은 일본의 젊은 여성 여행자들이 미국인을 비롯한 백인 남성을 향해 적극적으로 성적인 구애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택시를 타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만나고 즐길 수 있다는 뜻에서 일종의 ‘헤폰’ 일본인 여성을 뜻하는 말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는 19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소설, 잡지 기사 등을 통해 일본 전역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엔고 현상에 힘입은 데다 높은 가처분 소득으로 여유를 가지게 된 세련된 고학력의 젊은 일본 여성들이 미국을 비롯한 서구로 여행을 떠나 성적 파트너를 찾아 모험을 벌이는 것을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일본의 젠더 체계에 대한 거부로 읽히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는 남성과 여성, 서구와 아시아, 오리엔탈리즘과 섹슈얼리티, 민족적 남성성, 여행의 정체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S. Buckley ed. *The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London & NY: Routledge, pp.533-536.

2. 장소, 이동, 서사

전지구적 이동을 규정하는 많은 힘들이 있다. 추방, 망명, 이주, 난민, 노동과 같은 계기는 한동안 국가 간 이동의 주된 동인(動因)이었다. 그리고 이는 ‘디아스포라(diaspora)’ 개념이 암시하고 제안하는 것처럼, 민족국가란 사회적 공동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술한 유사-국민(민족) 정체성을 낳았다. 디아스포라는, 이주를 통해 하나가 아닌 여러 분산된 곳에서 민족 정체성을 (탈)구성하거나 변용하는 관련한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실천을 조망하게 하는 개념이었다. 그리고 이는 오랜 동안 지리적 경계를 가로지르는 이동과 그 이동하는 주체가 구성하고 체득하며 전승, 단절, 변용하는 정체성을 헤아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⁴⁾

그런데 이러한 지리적 이동과 그 이동행위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이주, 이민, 도피, 여행, 유학, 망명, 난민 등)는 지리적 공간의 정치적 유형과 불가분한 관계를 이룬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의 정치적 유형을 대표하는 지명(地名) 가운데 하나가 ‘제3세계’ 일 것이다. 제국주의 이후의 역사적, 정치적 지형이었던 제1세계와 제3세계는, 이제 전지구적 북반구(global north)와 전지구적 남반구(global south)라는 새로운 분할로 전환하였다.⁵⁾ 국제정치를 규제하는 관여하는 국제기구를 비롯해 저널리즘을 통해 널리 확산된 이 개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분할과 지배를 상상하고 지시하는 개념이 되었다. 그렇지만 전지구적 북반구/남반구란

4) 디아스포라란 개념의 여정에 대해서는 코헨의 글을 참조하라. 그는 민족적 이산민을 가리키던 지시어에서 벗어나 고향이나 조국을 등지게 된 사람들을 망라하는 ‘은유적 호칭’으로 나아가고, 다시 탈식민과 세계화의 조건에서 민족정 동일성에 집착한다는 연유로 비판을 받는 등의 과정을 크게 네 개의 단계로 분류하고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조희하고 소개한다. 로빈 코헨,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영민 옮김, 민족원, 2016.

5) 아리프 딜릭, 『글로벌 모더니티』, 장세룡 옮김, 예코리브르, 2016.

개념이 1950년대에 부상해 1970년대에 절정을 이루며 냉전 체제의 붕괴 이후 사멸하거나 쇠락한 '제3세계(주의)'란 개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제3세계란 개념은 무엇보다 이를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이상으로서 구상하고 추진하는 정치체(political entities)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테면 회의(예컨대, 반동 회의 Bandung Conference, 3대륙회의 Tricontinental Conference 혹은 Solidarity Conference of the Peoples of Africa, Asia and Latin America), 기구(아시아-아프리카 민중연대기구 AAPSO; African-Asian Peoples' Solidarity Organization, 동남아조약기구 SEATO; The Southeast Asia Treaty Organization 등), 조직, 대표기관(정부, 민족해방 혹은 인종차별 반대 운동단체 등), 네트워크(비동맹운동 NAM; Non-Aligned Movement 등), 경제관계(발전 development, 근대화 modernization, 신국제경제질서 NIEO;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⁶⁾ 등), 이론적 담론(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 정치적, 군사적 전략(저 유명한 체 게바라의 거점 *foquismo*, focalism) 등은 모두 제3세계란 개념이 단지 지리적 구분을 가리키는 것 이상이었음을 예시한다.⁷⁾

그러나 전지구적 남반구란 개념은 그러한 정치적 이상주의(비자본주의 발전과 민족 독립 등)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그것은 동서냉전의 문제를 남북문제로 전환하며 지리 정치의 구조를 제시하던 것보다 거리가 멀다. 여기에서 남반구란 단지 빈곤한 적도 이남의 지역이라는 지시대상 말고는 다른 어떤 함의도 없는 듯이 보이기까지 한다. 따라서

6) Addo, Herb, ed.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Nine Critical Essays on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London: Hodder & Stoughton, 1984.

7) 제3세계와 제3세계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Mark T. Berger, "After the Third World? History, Destiny and the Fate of Third Worldism", *Third World Quarterly*, Vol. 25, No. 1, pp.9-39.

제국주의와 식민지, 중심과 주변, 서구와 타자, 발전과 저발전, 선진과 후진의 분류 체계는 지구적인 정치의 형세를 규정하는 개념들로 역할하지 못한채, 누군가의 말처럼 평평한 지구의 지평선만이 우리의 시야 앞에 놓인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지리정치가 가리키던 장소들이, 지구화 이후의 세계의 지리적 배치를 가리키는 새로운 개념과 상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해야 할까. 이미 우리는 그에 익숙한 것 같기도 하다. 이를테면 우리는 세계화 이후의 현실에서 공간/장소에 관한 매우 다른 지리적 상상이 쏟아지고 있음을 경험한다. “지구를 구합시다(Save the Planet)”와 같은 환경보호와 관련한 캠페인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인류가 책임져야 하는 생태적 삶의 지평으로서의 지구(planet)라는 새로운 상상적 지리의 이미지가 저 위에 자리 잡고 있다.⁸⁾ 그리고 또 그 곁에는 허니문 여행의 목적지로만 알려진 채 영토라는 전통적인 국가적 지리의 작도법에서 분리된 채 알려진 코타키나발루(말레이시아)나 세부(필리핀), 발리(인도네시아), 사이판(북마리아나제도)이란 장소의 이미지가 있다. 그곳들은 비취빛의 푸른 바다와 산호초 그리고 개인용 풀이 갖춰진 토속적인 빌라의 별천지 같은 풍경의 인상으로 떠오른다. 그것은 국가적 영토의 지리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그곳은 영토(territory) 즉 주권국가의 통치 범위로서의 지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국가(the social state) 혹은 사회(society)의 발생의 계보학적 분석을 진행하며 미셸 푸코가 언급했던 ‘환경’(milieu)으로서의 지리도 아니다.⁹⁾ 그렇기에 우리는 독특하고 호환할 수 없는 경관과 이미지,

8) 문화적, 정치적 상상의 지리학을 ‘비교작도법’이란 개념을 통해 소개하며 오늘날의 시공간을 둘러싼 서사들을 분석하는 다음의 글을 참조하라. 마이클 크로닌, 『팽창하는 세계』, 이효석 옮김, 현암사, 2013.

9)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원근법, 서사 등에 의해 표상되고 소비되는 장소의 군락 속에서 살아가는 듯 보인다. 그런 점에서 유커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동하는 주체'는 각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국가를 방문한 이방인으로서의 외국인이지만 그들을 영토국가의 국민이기에 앞서 '관광지인 자신의 장소를 방문한 여행자로서의 타자를 가리키는 '유커'로 표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말했듯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은 술한 이주와 이동의 주체를 표상하는 용어들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여 왔다.¹⁰⁾ 이는 이산민이란 독특한 이동, 이주하는 주체가 양적으로 다수여서도, 그것이 이동, 이주의 양상을 일반화하는 특성을 가져서도 아닐 것이다. 디아스포라란 개념은 이동하는 주체 가운데 어떤 하위집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주체를 규정하는 데 요청되는 해석과 비평의 서사적 원리라고 간주해 볼 수 있다. 이는 디아스포라란 개념을 비판하고자 시도하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가 제기하는 질문을 통해 잘 드러난다.¹¹⁾

모국으로부터의 떠나있음을 강조하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담론을 비판하며 이들이 모국과 거주국 모두에 소속되어있음을 강조하는 초국가주의는 디아스포라에 대한 비판이란 시늉을 취하면서 이주민을 가시화하고 분절하는 공통된 서사 공간을 마련한다. 초국가주의는 디아스포라란 개념이 이주자 공동체의 민족 정체성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면서 민

2011.

10) 디아스포라 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데이비드 바트럼 외, 『개념으로 읽는 국제 이주와 다문화사회』, 이영민 외 옮김, 푸른길, 2017;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앨피, 2016; 로빈 코헨,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영민 옮김, 민속원, 2017.

11) 윤인진은 해외의 학술적 논쟁 내에서 초국가주의와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대립하였는지 간략히 개관한다. 윤인진,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의 고전 및 현대 연구 검토』, 『재외한인연구』 통권 제28호, 2012, 7-47쪽.

족의 문화적 정체성의 차이와 유동성에 관해 간과한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국민적, 민족적 정체성 사이를 오가면서 사회적 실천을 조직하는 이주자의 모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다. 이렇게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주의 사이의 입씨름이 상연될 때, 우리는 이론적 대화의 공간 속에 마치 이주하는 주체의 모습이 어느새 미리 규정되어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이는 이동하는 주체를 민족적 문화 정체성을 대표하거나 재현하는 자로서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동하는 주체의 정체성은 민족문화라는 시좌(視座)를 통해 모두 망라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주, 이동하는 주체를 규정하는 정체성은 계급, 성별, 인종 등일 수도 있고, 민족문화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대중문화나 다른 문화적 실천에서 비롯된 문화적 정체성 등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이 이동하는 주체를 민족문화의 정체성 서사에 가두어 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나아가 그것은 이동하는 주체의 궤적과 통로, 수단 등을 구성하는 물질적 제도와 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¹²⁾ 따라서 이동은, 그 자체 이동하는 실재(entities)는 아니지만, 인간이든 상품이든 메시지가든 이를 운반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과 능력을 조장, 억압, 신축하는, ‘이동화하는(mobilizing) 객체들’의 세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동하는 주체에 관한 서사는 또한 그러한 주체들의 이동성을 가능케 하는 객체에 관한 서사들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여행의 경우만 하더라도 여행을 알선하고 진행하는 기업, 서비스, 시설이 없다면, 손

12) 이를테면 존 어리는 이렇게 말한다. “서로 교차되는 모빌리티는 하나의 시스템(실제로는 많은 시스템들)을 전제 한다. 이런 시스템들이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즉 여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는, 물건이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 공간’을 제공해준다.” 존 어리, 『모빌리티』, 강현수·이희상 옮김, 아카넷, 2014, 41쪽.

쉬운 지불을 가능케 하는 결제나 환전 시스템이 없다면, 비자나 여권과 같은 출입국에 관련된 법률적 규칙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란 담론은 이동하는 주체가 접촉하고 통과하는 대상적 세계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한다.

한편 그것은 이동하는 주체가 이동하는 시공간성(spatiotemporality)을 국가라는 공간에 제한한다. 그렇지만 시공간성은 지구적이면서도 지역적이고, 국가적이면서도 초국가적인 다양한 공간의 형태들에 의해 조직된다. 사스키아 사센이 지구적 도시(global cities)라고 부르는 도시들은, 자신들만의 정보적, 금융적, 인적 연결망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인접한 다른 지역보다(심지어 같은 국가 안에 있는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긴밀한 접촉을 진행한다.¹³⁾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시공간성의 지도는 단순히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라는 국가적 공간의 좌표를 통해 드러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란 것이 이동하는 주체의 정체성을 둘러싼 서사적 각축과 변형을 인식할 때 그것이 풍부한 문화적, 역사적, 정치적 함축을 지니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하면서도 이민자와 이주 민족집단이란 개념을 통해 이동성의 양태를 분석하는 데 보다 유의할 점들이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난민, 추방자, 비호신청자(asylum seeker), 이주자, 관광객, 초청노동자, 산업연수생, 고용허가 해외 노동자, 관광객 등은 모두 전지구적으로 이동하는 주체의 형상들이다. 추방과 망명, 도피, 생존을 위한 이별과 같은 경험을 행복하고 설레는 기분으로 또 곧 돌아올 집이 있다는 확신 속에 낯선 장소를 찾는 여행의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일

13)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한편 지구화 이후 이동성을 이해하기 위해 요청되는 시공간성의 다면성에 대한 사센의 분석으로는 다음의 저작을 참조하라. Saskia Sassen, *Deciphering the global: its scales, spaces and subjects*, New York: Routledge, 2007.

지도 모른다. 더불어 노동이주를 떠나 정착해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와 관광객을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이 보일 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동하는 주체의 다양한 형상에 유의하고 아울러 그를 매개하는 서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새로운 지리적 상상과 그에 개입되어 있는 감정, 정동을 분석하는 작업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 장에서 유커라는 중국인 관광객과 그를 분절하고 포획하려는 관광의 담론과 그것의 서사 형태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유커가 단일한 주체가 아니라 다양한 이동하는 주체를 아우르는 정체성임을 드러내고 이것이 아시아에서의 지리적 상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응시하는 관광객, 그리고 그 이후

영국의 사회학자 존 어리는 관광객 응시(tourist gaze)라는 개념을 통해 여행자(guest)와 방문한 곳의 거주자(host)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를 시선의 권력을 통해 규정하고 분석하고자 했다.¹⁴⁾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에서 개진되었던 미시적 규율권력의 모체로서의 (의학적) 시선(medic gaze) 개념을 전유한 그의 분석은, 서구 백인 제국주의 여행자의 여행 경험이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분석하는 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고 그 덕에 많은 관광 연구자들의 분석이 쏟아졌

14) John Urry, *Tourist Gaz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0; A. Franklin, "The Tourist Gaze and beyond: An interview with John Urry", *Tourist Studies*, Vol. 1 No. 2, 2001; V. Bajc, "Tourist Gaze." *The Encyclopedia of Consumer Culture*, D. Southerton, ed. London: Sage, 2011.

다.¹⁵⁾ 관광객이 여행안내 책자를 들여다보며 자신이 찾은 매력적인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을 때 이미 여행은 재현적 이미지로 환원된 대상으로서의 여행 장소와 여행지에서의 정경(그 속에는 당연히 방문한 여행지의 사람들 역시 포함된다)과 그 이미지를 소비하고 전유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리의 논의는 관광객이 방문한 곳이 이미 매력적이고 독특한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갖도록 재현되어야 하고 관광객의 기대와 상상에 부응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흔히 말하는 그 장소의 고유성이나 진정성(authenticity)을 전경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행지의 주체들이 수행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연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결국 관광객과 방문지의 거주자 사이에 일종의 시선의 불균등한 배치, 응시자와 응시대상 사이의 관계에서의 권력관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¹⁶⁾ 그렇지만 어리의 논의를 둘러싸고 많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시선의 권력관계에는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의 일방향적 권력관계 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자의 되돌려주는 시선 혹은 ‘가려진 시선(veiled gaze)’을 통해 저항, 거부, 비승인, 냉소 등의 반응적 보기가 실천이 항상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응시란 개념이 전제하는 바처럼, 관광객 응시는 시각적인 행위로 환원할 수 없는 여행 ‘경험’의 다양한 감각적 형식과 내용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상당하다. 특히 널리 부상하고 있는 ‘체험’ 관광이나 스포츠 관광과 같은 것은, 체험과 관광에서 기대되는 적절한 풍경을

15) J. Larsen, “The Tourist Gaze 1.0, 2.0, and 3.0”, A. Lew, C. M. Hall & A. M. Williams ed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Tourism*, London: Wiley-Blackwell, 2014.

16) J. Urry & J. Larsen, *Tourist Gaze 3.0*, London: Sage, 2012.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이 영유하는 경험 가운데 시각적 경험은 유일하거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시각적인 경험을 증시하는 어리의 논의를 트집 잡는 것은 손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비판에 더해 우리는 비록 그가 관광객의 시선을 총체적이고 전일적인 시선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적이며 유동적이고 그러한 경험을 조직하는데 작용하고 간섭하는 장치, 기술, 정보, 지식 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양한 요인들의 우연한 결합을 통해 그런 시선은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느슨하게 규정하고 만다는 데 불만을 품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유커라는 독특한 유동적 주체(mobile subject)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¹⁷⁾

중국인 관광객으로서의 유커는 다양한 담론적 장에서 재현된다. 이는 중국인 관광을 진작시키려는 국가기관에서부터 중국인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려는 관광산업이나 관련된 분야의 마케팅, 조사기관, 유커의 쇄도를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선전하는 대중매체,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시도하려는 지방자치단체, 흉악범죄와 불결하고 야만스런 행동을 일삼는 열등한 국가의 국민을 비난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유커는 술한 발화 지점에서 튀어나온다. 그렇지만 유커라는 담론은 거리에서 만난 구체적인 인격적 개인으로서의 중국인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유커는 여행자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우리에게만 한국을 방문한 관광객으로서의 중국인이다. 또한 그들은 관광객으로서 정체화된 중국인이다. 사업차 방문한 중국인, 유학을 온 중국인, 이주노동자로서의 중국인,

17) '관광객 시선'이란 관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시선과 호스트로서 한국인의 시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글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양영균, 『중국인의 한국 관광과 한국 사회의 변화』, 『동아시아관광의 상호시선』,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관람하는 중국의 중국인, 한국에서 인터넷이나 다양한 통신매체를 통해 접촉하고 대화하는 중국인 등은 유커라는 개념과 짝짓기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길에서 마주친 중국인을 대뜸 유커라고 상상하기 일쑤이다. 한국의 중국인은 그가 거주하고 활동하는 곳에서 직접 마주하지 않는 한, 그의 사회적 소속을 명시하는 특별한 지표가 동반되지 않는 한 유커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유커는 단순히 중국인 관광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동하는 주체'의 정체성이 어떻게 서사화되는가를 밝히는 데 있어 모델이 될 만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동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의 독특한 모델로서, 그러한 모델 형태가 어떻게 서사를 통해 조직되고 구성되며 중재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관광'이라는 주도적인 경제적 실천이 어떻게 환대와 응접, 교류와 친교라는 일상적인 실천을 조정하고 지배하는지를 말해주기도 한다.

이방인 혹은 이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작용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그것은 국민국가의 성원으로서 타국과 맺는 역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갈등, 협조, 인정, 적대 등에서 말미암는 동경, 원망, 증오, 우의 등 여러 가지의 감정이 투여된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적인 기억이 침전되고 그를 공유하며 형성된 표상과 서사들이 그러한 이방인을 응대하는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를테면 유커가 그러하다. 수천 년간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를 염두에 둘 때 우리를 방문한 중국인의 초상으로서의 유커라는 것에는 어딘가 놀라운 데가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절연된 놀라운 표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오랜 세월 조공관계를 맺어야 했던 제국으로서의 중국, 한국전쟁에서 인해전술을 사용하며 북한을 지원한 분

단의 주역으로서의 ‘중공(中共)’, 죽(竹)의 장벽에 갇혀있던 문화혁명의 나라로서의 중국 등을 둘러싼 기억은 유커의 초상 속에선 상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갑자기 중국인은 우리가 다시 해부하고 분절해야할 특별한 인구적 범주로서 나타난다. 이렇게 탈역사화/재역사화된 타자로서의 표상이 바로 유커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유커는 공식적인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자율화된 이방인 혹은 외국인의 형상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으로서의 유커는, 기존의 중국인에 관한 표상과 그에 부과된 서사를 삭제하고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기억과 서사란 것이 지우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듯 시늉한다. 그리고 ‘동시대’ 중국인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서사적인 시간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현재’라는 서사적 시간성을 통해 중국인을 표상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관광(산업)과 그에 부속된 다양한 행위자들(언론매체, 정부기관, 지방자치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다. 이들은 세계화 이후 이동하는 주체의 다양한 이동성에 반작용하고 또 개입하는 실천들과 담론들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동력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정부기관은 국민문화의 가치와 아시아의 발전된 산업국가로서의 자부심을 선양하려는 국가적 캠페인과 관광을 연계한다. 그리고 대중매체 역시 거리를 메운 것처럼 과장된 관광객 이미지들을 통해 우리와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타자로서의 그/그녀의 형상 가운데 관광객으로서의 형상을 으뜸가는 위치에 올려놓는다. 우리를 찾는 그들은 어쨌거나 관광을 위해 거리를 배회하는 그들이다.

그리고 이는 다중적인 이동성(multiple mobilities)에 의해 지배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매우 불가능한 일을 도모한다. 관광객은 여행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고 그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욕구를 읽어내야 한다. 즉 그들은 내게 혹은 우리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러나 이동하는 주체로서의 관광객은 오늘 면세점이나 홍대 거리에서 마주친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관광객은 매우 능란하게 다중적인 이동성을 실천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움직이는 과녁처럼 보이기만 하고, “유커를 잡아라”라는 구호는 손쉽게 조롱당한다. 유커란 바로 복잡한 이동성의 회로 속에서 움직이는 주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중적인 이동성이란 말 그대로 낯설고 매력적인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장소와 생활을 영유하는 것에 제한되지 않는 다양한 이동의 경험이 도래한 세계를 가리킨다. 다중적 이동성이란 개념을 적극 주장하는 어리의 경우 많은 서구 사회에서 생활양식이 되어버린 신체적, 물리적 여행, 매체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소들과 사람들에 관한 이미지를 통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는 상상적 여행(imaginative travel)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지리적이면서 사회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가상적 여행(virtual travel)을 구분하기도 한다.¹⁸⁾

첫 번째 물리적, 신체적 여행이 어떤 규모로 변화하고 또 증대했는지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지난 수십 년간 여행의 대표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시피 한 저가여행(budget travel)은, 전에 없이 저렴한 항공요금과 증대된 운항편수와 노선의 확대, 그리고 보다 편리해진 여행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다. 휴대전화를 통해 즉석에서 항공요금을 비교하고 시즌 별로 이뤄지는 저가 항공권의 세일 행사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에어비엔비(Airbnb)’같은 숙소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게다가 아웃바운드 여행의 필수적인 장벽이라 할 비자나 여권의 발급 역시 보이지 않게 간편해 졌다. 이는 중국인 관

18) B. Szerszynski & J. Urry, "Visuality, mobility and the cosmopolitan: inhabiting the world from afar",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ume 57 issue 1, 2006, pp.115-8.

광객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한국을 호스트로 선택한 유커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해외여행과 관련한 자유화 정책의 혜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가난한 중국인 이주노동자의 입국을 경계하며 비자발급 조건에 소득 수준과 방문회수와 기간을 제한하던 한국 정부의 엄격한 조건이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하고 한국과 프랑스가 가장 유커의 목적지가 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프랑스는 2014년 1월 프랑스 방문 중국인 비자 발급 기간을 12일에서 이틀로 단축함은 물론 주요 15개 중국 도시에 비자센터를 설치하여 중국인 방문자들의 수를 50퍼센트 증가시켰다.

한국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특별자치구역인 제주도를 통해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30일까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고 제주를 경유해 한국의 7개 공항에서 120시간 이내로 비자 없이 체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개별 관광객도 제주에서는 30일까지 비자 없이 그리고 유럽의 30개 국가가 최종 목적지인 경우에는 30일까지 비자 없이 머물 수 있다. 게다가 단체 청소년 수학여행 관광객들에게도 역시 비자를 면제하였다. 이는 최장 20일까지 체제 기한에 제한을 부여하고 항공권과 숙박예약 시 반드시 여행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매우 관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다양한 조건들의 작용을 통해 물리적, 신체적 이동이 증대한 것은 이동하는 주체의 증대를 규정하는 한 측면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관광과 여행이 가장 대표적인 이동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그러한 물리적이고 신체적인 이동 없이 이뤄지는 각양각색의 이동 역시 폭발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리가 말한 상상적 여행이다. 케이블TV의 여행전문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하루 종일 세계 각지를 지리적 거

리의 제약 없이 매끄럽고 가볍게 넘나들 수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의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TV 프로그램 역시 부지기수이다. 요리 프로그램도 예능 프로그램도 낯설고 매력적인 장소와 사람들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다시피 되었다. “TV와 여행, 이동(the mobile)과 모뎀(modem)은 현전하는 것과 부재하는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무대 앞과 무대 뒤에 있는 것, 가까운 것과 먼 것을 흐릿하게 만들면서 전 지구적 마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은 세계에 살고 있는 셈이다. 관광객은 <론리플래닛 Lonely Planet>과 같은 여행안내 책자나 여행기 같은 책들을 통해 여행 대상에 관한 이미지를 소비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TV 화면을 통해 혹은 인터넷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기’를 이미 상상적으로 여행한다.



〈그림 1〉 중국인 여행자들의 블로그 사이트인 Qyer의 서울 관련 페이지

앞의 그림 1은 중국에서 가장 큰 인터넷 사용자 생성 콘텐츠 여행 사이트인 “치용요우왕(穷游网)”의 페이지를 보여준다. 이 사이트에서는 블로거와 같이 많은 여행자들이 자신의 여행 경험을 담은 사진과 추억, 정

보 등을 게시한다.¹⁹⁾ 그리고 검색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접속자들은 한 세기 전 여행 소설을 읽으며 낯선 곳에 대한 상상을 하던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상적 여행을 수행한다. 또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전문 기업인 Ctrip의 한국 여행 안내 상품 소개 사이트를 보여주는 그림²⁾는 제주도와 서울 혹은 서울-강원도 등의 패키지 관광을 소개하는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며 방문지의 주요한 특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낯설지 않은 곳인 양 중국어 간판이 명동이나 홍대 입구, 이대 부근 거리 모습을 제시한다. 물론 이러한 곳을 접속하고 유명하는 이들은 상상적 여행이라는 이동을 경험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생산하고 분배하는 언어와 이미지는 이상적인 이동 주체로서의 유커라는 목표를 포획하는 노력을 언제나 곤란케 할 것이다. 중국 관광객에 관련한 솔한 보고서들에서 한결같이 중국인 블로거들 (bloggers)이 여행지를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므로 그들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치용요우왕”같은 사이트에서 적잖은 댓글들은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있는 유커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은 아마 앞서 어리가 언급했던 “가상적 여행”이라는 이동성을 담지 하는 주체일 것이다. 편지, 엽서, 생일카드나 성탄카드, 전화, 이메일, 소셜미디어서비스, 가상회의 등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저곳으로 가는 여행을 행한다. 자신이 지금 방문한 이곳과 떠나온 저 곳에 동시에 머물며 낯선 곳을 동시에 자신에 익숙한 곳으로 길들이는 이러한 행위는 과거 여행 책자에서 본 바로 그 풍경과 동일한 모습으로 프레이밍된 사진을 찍는 관광객의 행

19) 최근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여행정보를 얻었다는 이들은 전체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74%에 이른다. 이는 지난 시대의 여행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었을 관광안내서적이 차지하는 비중 15.9%를 월등히 앞선다.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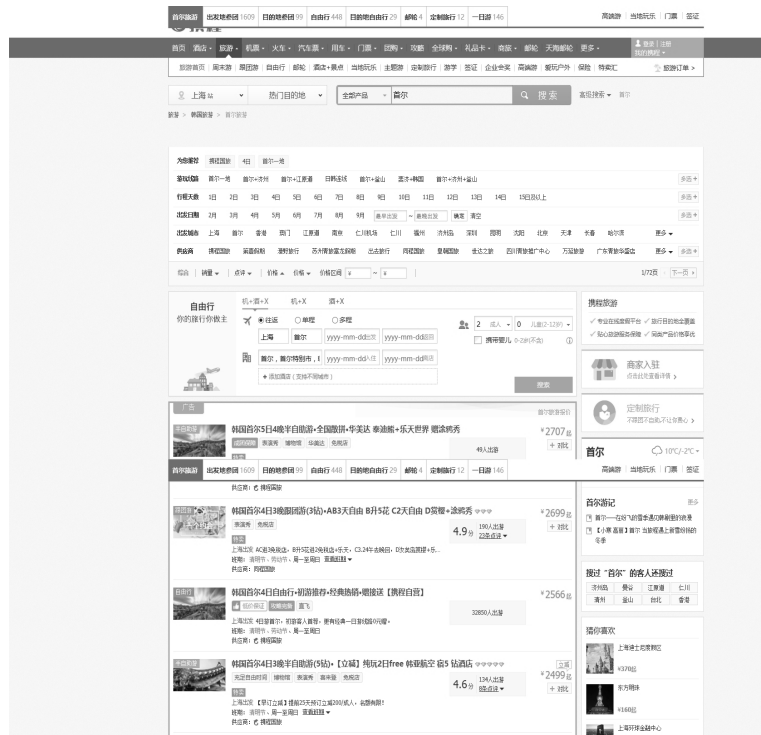
위를 계승한다. 중국 관광객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느 보고서에서 말하듯이 중국인들이 숙소를 택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이다. 약 6억5천만 명 정도의 중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2013년 이래 거의 매년 30퍼센트씩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80퍼센트 정도가 여행을 계획하고 예약하는 데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한다.²⁰⁾

그리고 이는 유커가 여행 인솔자의 깃발을 따라 떴지 몰려다니며 소란법석을 떠는 중국인들이 아니라 그들의 절반 이상은 개인 여행자들이며 상대적으로 정보통신기술에 밝은 대학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이며 젊고 부유한 계층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어느 신문 기사는 이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다. “불과 몇년 전만해도 요우커 대부분이 중장년층 중심으로 몰려 다녔던 ‘깃발부대’였지만 지금은 20·30대 개별관광객인 ‘산커(散客·중국인 개별관광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빠링허우(八零后, 80년대 출생자)와 ‘지우링허우(九零后·90년대 출생자)’를 중심으로 스마트기기로 무장하고 여행을 즐기는 산커들이 늘고 있다.”²¹⁾ 그리고 이 신문기사는 산커라는 새로운 중국인 관광객에 구애할 필요를 역설한다.²²⁾

20) “2016, The future of Chinese international travel”, Resonate Report, 2016, p.14.

21) 『요우커의 세대교체…‘깃발부대’가고 산커의 시대』, 『헤럴드경제』, 2016.10.16.

22)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중국인들 가운데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전체 인구의 4퍼센트 정도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가운데 28퍼센트 정도가 여권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he Goldman Sachs Group, Inc. *The Chinese tourist boom*, 2015, pp.14-5.



〈그림 2〉 중국 최대 여행사인 Ctrip의 웹사이트에서 한국 관광 관련 페이지

유커는 우리에게 표본적 주체(model subject)로서의 중국인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인을 과잉 대표/재현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현의 한계를 교정하고 유커의 진면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관광 수요를 개발하려는 담론은 또 다른 조작을 통해 유커를 “탈(脫)유커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再)유커화”한다. 이를테면 한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근대사회에서 포스트모던사회로 진입하면서 나타나는 여가양식의 역사적 변화라는 추세를 내세우면서, 중국인 관광객 역시 그런 추세에 따를 것이라 가정하고는, 중국인 관광객의 미래 여행 소비의 추세에 관한 나름의 예측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유커로 알려진

중국인 관광객의 정체성을 보다 면밀히 규정하고 이해하기 위해 ‘포스트 모던화’라는 세계적인 문화 변동의 추세라는 서사를 인용하고 또 이를 중국인에 대입한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은 영어권에서 밀레니얼 청년층 (millennial youths)이라 부르는 새로운 여행자 세대를 핵심적인 여행자 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서사는 “여가양식”의 역사를, 이를 체현하는 각 세대의 분류를 통해 동시화하고 분포시킨다. 이를테면 우리말로 50년대산이라 부를 수 있을 “우링허우(五零後)”, 그리고 60년대산인 “류링허우(六零後)”, 1970년대산인 “치링허우(七零後)”, 1980년대산은 “바링허우(八零後)”, 90년대산은 “지우링허우(九零後)”로 각각 지칭된다. 여기에서 유커는 인구학적인 시좌를 통해 분별되면서 중국의 역사적 변화에 대한 독특한 서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²³⁾ 이 과정에서 유커는 중국인 관광객일 뿐 아니라 중국 현대사의 역정이 침전되고 매개된 주체로 ‘번안’된다. 유커는 여가양식을 통해 분절되고 표상되는 중국인으로서 서사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서사는 우리와 타자 사이의 경계를 또 한 번 동요시킨다.

‘세대 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것일까. 중국의 세대 담론은 정부기관, 사회이론가, 저널리스트, 문화평론가, 마케터, 경영학자 등 다양한 이들에 의해 사회의 내적 구성과 변화를 서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생산, 소비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그러하듯이 세대를 통한 사회의 표상 전략은 중국 내부에서도 매우 갈등적인 담론의 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커는 누구인가” 물으며 그에 보다 적절히 답하려 세대라는 서사의 형태를 채택할 때, 우리는 중국인이 자신들의 삶을 분절하는 갈등적이면서도 헤게모니적인 서사 가운데 하나에 유커-중국인을 위치시킨다. 우리가 “더욱 잘 알 수 있게 된” 그들은,

23) 이정훈 외, 『중국인의 여가관광양식 변화와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2011.

그들의 지배적인 서사 가운데 한 종류, 즉 여가양식이라는 서사를 통한 자기 표상에 의해 포획된다. 계급이나 계층, 정치적 연대기가 규정하는 경험의 구획에 따르는 세대 담론(말하자면 유커를 포스트-천안문 세대로 지칭하는 것 따위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과 달리,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형태 같은 것을 통해 규정되는 세대 담론을 채택하는 것은, 소비자본주의에서의 독특한 헤게모니적 서사이다.

그러나 유커를 서사화하는 담론은 언제나 이러한 소비자-관광객-중국인이라는 정체성 주변을 선회한다. 국내의 학술지에 발표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조사연구기관의 보고서나 백서, 자료 등에서도 역시 이러한 서사적 전략은 끊임없이 순환한다. 새로운 해외직구족을 가리키는 “하이타오(海淘)족”이든 아니면 “스마트폰에 몰입되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의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어”라고 선별된 “띠터우쭈(低頭族·저두족)²⁴⁾”, “1인당 GDP가 8000달러 초반에 불과한 중국에서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 기반 취향소비 행태가 나타난 배경”으로서 “1980~2000년대 출생의 빠링허우(80년대생)와 지우링허우(90년대생)를 아우르는 말”이라는 “와이(Y)세대” … 이 모든 소비의 인류학적 분류는, 결국 유커의 민족지학적(ethnographic) 서사처럼 구실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유커를 보다 투명하고 자세하게 분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렇지만 국내에 번역 소개되며 제법 관심을 불러일으킨 저층문학(底層文學)의 대표작인 『민주수업』²⁵⁾이나 문화혁명을 파문한 개혁개방 시대의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혁명후기』같은 텍스트를 볼 때²⁶⁾, 또 “삼

24) 광복선, “저두족(低頭族)을 아시나요”, 『중국의 창』, <http://china.donga.com/List/3/090205/43/738715/1>

25) 조정로, 『민주수업』, 연광석 옮김, 나뭇잎스, 2015.

26) 한사오궁, 『혁명후기-인간의 역사로서의 문화대혁명』, 백지운 옮김, 글항아리, 2016.

농(三農)문제”라는 쟁점을 제기하면서 서구자본주의를 본뜬 근대화와 도시화에 반대하는 논의를 제기하며 중국의 주요 지식인으로 부상한 윈테쥘(溫鐵軍)의 『백년의 급진』같은 텍스트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²⁷⁾ 이러한 문학작품이나 텍스트들은 중국 내에서 세대의 서사가 얼마나 갈등적인 서사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화대혁명’을 상기할 때, 시장경제로의 전환 이후의 산업화를 염두에 둘 때, 중국의 세대 서사는 다른 방향으로 치닫는다. 그것은 소비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서사로부터 벗어나 다른 세대적 단절과 격차를 그려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세대 서사, 즉 유커를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첨가되고 유입되는 서사들은 유커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데 보다 한 발짝 다가설 것이라는 소망을 투영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는 타자의 표상을 위한 서사를 지배하는 결정적인 힘으로서 관광이 어떤 방식으로 힘을 발휘하며 타자에 대한 표상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규제하는지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다.

4. 글을 맺으며: 새로운 정동지리학적 상상력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유커라는 독특한 이동하는 주체의 정체성에 주의하면서, 디아스포라 이후 이동하는 주체를 둘러싼 서사적 접근의 쟁점을 헤아려보고자 시도하였다. 이 글에서 유커에게 주목한 이유는 중국인이라는 국민적 정체성을 지시하면서도 이를 관광객이라는 특수한 주체로 한정하는 독특한 서사적 표상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유커는 많은 점에서 징후적인 이동하는 주체이다. 그것은 냉전 시대를 거치며 나

27) 윈테쥘, 『백년의 급진』, 김진공 옮김, 돌베개, 2013.

아가 한반도에서의 분단을 경유하며 형성된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대립과 갈등을 슬그머니 감추거나 추월하며 관광객으로서 서로를 방문하는 자들로서 서로를 표상하도록 한다. 호스트로서의 한국인이라는 서사적 주체는 중국인을 게스트, 관광객, 유커로서 표상하는 관계를 조직한다. 그리고 이는 냉전 민족주의를 추동하던 원망, 환멸과 같은 감정을 소거하거나 증발시킨다. 나아가 이를 선망할만한 대상으로 자신을 찾은 이들에 대한 경멸과 그들이 발휘하는 막강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구애와 기대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이는 탈식민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 제1-2-3세계, 후진, 개발도상, 선진이라는 정치적 지형학을 벗어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근대화와 비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전망 위에서 형성된 갈등과 불화의 정동적 지리를 여행목적지로서의 이웃 국가, 문화적 격차가 크게 없으면서도 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타지라는 관광의 지형학으로 바꾸어 낸다.

매일 유커의 감소를 근심하며 경제적 손익을 저울질하는 뉴스 앵커의 격앙된 목소리는 새로운 정동의 지리가 출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세계화 이후 다극적 중심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동북아시아지역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아시아의 동일성에 대한 호소, 그리고 최근의 영토 분쟁에서 나타나듯이 세계 자본주의의 권력 배치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의 갈등에서 드러나는 ‘분쟁 중의 아시아’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혐한, 공한증(恐韓症), 혐일 등의 복잡한 감정의 매트릭스는 복잡한 정동의 지리학(affective geographies)을 그려낸다.²⁸⁾

28) 정동의 지리학이란 정동 혹은 감정, 분위기 등의 개념을 통해 공간과 장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정동이나 감정, 분위기 등의 개념은 매우 혼란스럽고, 분석과 논의를 위해 준거하는 이론적 접근 역시 스피노자-들뢰즈적인 관점이라든가, 하이데거적 접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최근 크게 지지받고 있는 정동론적 접근처럼 이데올로기나 재현,

그리고 이는 유커로서의 중국인과 그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중국인이 라는 이중적이면서도 갈등적인 형상을 가리킨다. 탈식민적 아시아의 정동지리학을 사유하기 위해 유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동지리학은 민족주의를 통해 집적된 감정과 태도의 분규를 가리키는 것으로 환원할 수 없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유커를 환대하고 그에게 구애하는 감정과 매력적인 한국을 방문하려는 욕망 속에 깃든 선망과 동경의 감정은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거나 누그러뜨리고 또 운반하거나 차단한다. 그리고 타자의 표상을 생산하거나 변형한다. 혹은 역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유커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관광과 문화교류,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는 금지되거나 배제되어야 할 민족주의나 국수주의가 맹위를 떨친다고 개탄한다. 군사적 위협과 분쟁을 우려하고 그에 반응하는 그들의 반응과 저항은 국수주의나 민족주의가 되고 그들의 몸짓은 “한국 때리기”, “한국 무차별 난타”, “유커의 저주” 운운의 표현을 통해 기피되고 거부된다. 그러므로 유커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독점적으로 영유하는 관광의 담론에 끼어들며 그것이 억압하거나 굴절하는 것들을 심문하고 질의하는 지리적 상상을 계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대표되는 이주의 정체성 정치와는 다른 이동, 주체성, 서사가 교차하는 문화정치적 서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사 같은 개념에 대하여 비판적인 정동의 지리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적 서사와 그것이 운반하거나 그 내에 충전되어 있는 감정이나 정동에 보다 주목한다. 스피노자-틀뢰즈적 관점의 정동이론을 끌어들이며 도시의 정동적 특성을 분석하는 대표적 작업으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Nigel Thrift,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New York: Routledge, 2008. 현상학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혼용하며 도시의 정동성을 분석하는 것으로는 앙리 르페브르의 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앙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예코리브르, 2011.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강윤경, 『유커 1천만 시대 공염불되나』, 『Midas』,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2015.
문화체육관광부, 『2015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박문수 외, 『관광객 소비패턴 분석 및 산업연계 활용방안』, 산업연구원, 2014.
_____, 『방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4.
유설희, 『경복궁 교태전은 왕비가 교태 부리는 곳』, 『신동아』, 2015년 6월호.
이동훈, 『유커냐 ‘요우커’냐? 뜻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국립국어원의 이상한 중국어 표기법』, 『주간조선』 2428호, 2016.
이정훈 외, 『중국인의 여가관광양식 변화와 전망』, 경기개발연구원, 2011.
장병권, 『중국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대응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The Goldman Sachs Group, Inc. *The Chinese tourist boom*, 2015.
“2016, The future of Chinese international travel”, Resonate Report, 2016.

2. 논문과 단행본

- 데이비드 바트럼 외, 『개념으로 읽는 국제 이주와 다문화사회』, 이영민 외 옮김, 푸른길, 2017.
로빈 코헨, 『글로벌 디아스포라』, 유영민 옮김, 민속원, 2017.
마이클 크로닌, 『팽창하는 세계』, 이효석 옮김, 편암사, 2013.
미셸 푸코, 『안전, 영토, 인구: 콜레주드프랑스 강의 1977~78년』, 오트르망 옮김, 난장, 2011.
수전 손택, 『사진에 관하여』, 이재원 옮김, 이후, 2005.
아리프 딜릭, 『글로벌 모더니티』, 장세룡 옮김, 에코리브르, 2016.
양리 르페브르,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2011.
양영균, 『중국인의 한국 관광과 한국 사회의 변화』, 『동아시아관광의 상호시선』,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원테진, 『백년의 급진』, 김진공 옮김, 돌베개, 2013.
조정로, 『민주수업』, 연광석 옮김, 나뭇잎, 2015.
존 어리, 『모빌리티』, 강현수·이희상 옮김, 아카넷, 2014.
케빈 케니, 『디아스포라 이즈』, 최영석 옮김, 앨피, 2016.
한사오공, 『혁명후가 인간의 역사로서의 문화대혁명』, 백지운 옮김, 글항아리, 2016.

- Addo, Herb, ed.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Nine Critical Essays on 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London: Hodder & Stoughton, 1984.
- Bajc, V., "Tourist Gaze." *The Encyclopedia of Consumer Culture*. D. Southerton, ed. London: Sage, 2011.
- Berger, M. T., "After the Third World? History, Destiny and the Fate of Third Worldism", *Third World Quarterly*, Vol. 25, No. 1, pp.9-39.
- Buckley, S., ed. *The Encyclopedia of Contemporary Japanese Culture*, Routledge: London & NY, p.534.
- Dragojlovic, A., "Affective geographies: Intergenerational hauntings, bodily affectivity and multiracial subjectivities", *Subjectivity*, Volume 8, Issue 4, 2015, pp.315 - 334.
- Franklin, A., "The Tourist Gaze and beyond: An interview with John Urry", *Tourist Studies*, Vol. I No. 2, 2001.
- Larsen, J., The Tourist Gaze 1.0, 2.0, and 3.0, A. Lew, C. M. Hall & A. M. Williams eds., *The Wiley Blackwell Companion to Tourism*, London: Wiley-Blackwell, 2014.
- Sassen, S., *The global city: New York, London, Tokyo*,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_____, *Deciphering the global: its scales, spaces and subjects*, New York: Routledge, 2007.
- Szerszynski, B. & J. Urry, "Visuality, mobility and the cosmopolitan: inhabiting the world from afar",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volume 57 issue 1, 2006, pp.115-8.
- Thrift, N., "Intensities of Feeling: Towards a Spatial Politics of Affect",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ume 86, Issue 1. 2004.
- _____, *Non-Representational Theory: Space, Politics, Affect*, New York: Routledge, Taylor & Francis, 2008.
- Urry, J., *Tourist Gaze*, London: Sage Publications, 1990.
- _____, *Gazing on History, Cities and Society*, Nancy Kleniewski ed. Malden, MA: Blackwell Pub, 2005.
- Urry, J. & J. Larsen, *Tourist Gaze 3.0*, London: Sage, 2012.

Abstract

Youke and Sanke

- Toward affective geography of postcolonial Asia

Seo, Dong-Jin(Kaywon University of Art)

In this article, we draw attention to the “moving subject” known as “Youke.” The definition of Youke, which refers to Chinese tourists who visit South Korea, does not seem to make sense. First, these individuals are not Chinese, because the term does not encompass Chinese who dwell, work, study, and so on in South Korea. Second, such people are not tourists, because the term excludes tourists who visit and tour other countries. That is, Youke is a narrative fabricated and elaborated upon by Koreans, particularly among agents in the tourism industry,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media, among other areas of society. This article examines how place, affect, and historical memory intertwine to determine the narrative strategies of representing the moving subjects, stepping beyond the diaspora discourse which has been predominant in dealing with them. In conclusion, we call for affective geographies of the mobility of travel and tourism and the immobility of conflict and confrontation struggling with discourses to represent mobility, subject and places on East Asia.

(Key Words: *Youke*(游客), Chinese tourists, narrative, representation, affect, geography of affect, diaspora, trans-nationalism, mobility/immobility, memory, place, tourism)

논문투고일 : 2017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5월 2일

수정완료일 : 2017년 5월 4일

게재확정일 : 2017년 5월 9일